

멋진 신세계(by 올더스 헉슬리)

1장 (1-4)

복막이라는 침대 위에서 성장하는 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태아에게 공급되는 양분이 풍부한 혈액대용액을 맛보라고 했다. 왜 태아를 태반분비물과 갑상선 호르몬으로 자극할 필요가 있는가를 설명했다.

또한 난소황체의 추출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그 추출물이 자동적으로 주사되는 분출구를 보여주었다. 원점으로부터 2천 40미터에 이르는 동안 12미터마다 설치된 분출구였다. 마지막 96미터에 걸친 과정에서 주어지는 점차 증가되는 뇌하수체 분비물에 대해 설명했다. 1백 12미터에 걸친 과정에서 각 병에 장치되는 인공적인 모체혈액의 순환에 대해 설명했다. 혈액대용액의 저장장치라든가 그 액체를 태반 위로 넘치게 해서 인공폐를 통과하고 노폐물 여과장치를 통과하도록 하는 원심력 펌프를 보여주었다. 또한 태아는 골치아프게도 빈혈에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예방이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과 그러한 경우에 있어 태아에게 돼지의 위에서 뽑아낸 엄청난 양의 추출물과 말의 태아의 간장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또한 8미터에서 마지막 2미터 사이에 설치한 간단한 기계장치로 태아가 운동에 숙련되도록 태아를 흔들어주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른바 ‘병 속의 충격’이라고 부르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병에 든 태아를 적당히 단련시켜 그 위험한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취해야 할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2백미터 근처에서 행해지는 성별검사에 대해 설명했다. 표지의 종류—남성에게는 T, 여성에게는 O, 그리고 불임녀로 결정된 것에는 백지에 검은 ‘?’를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하고 포스터 군이 말했다.

“대부분의 경우 임신능력이라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것에 불과합니다. 일천이백 개 중에서 한 개의 난소가 임신능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한 선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할 필요도 없는 일로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안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 태아의 삼십퍼센트는 정상으로 발육시킵니다. 나머지에게는 남은 코스의 이십사 미터마다 남성 호르몬을 투입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불임녀로 양육됩니다. 체격은 전혀 이상이 없으며 다만.....” 하고 그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콧수염이 약간 나는 경향이 있을 뿐이며 그냥 임신만 하지 않는 여성입니다. 불임성을 보증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고 포스터 군은 말을 이었다.

“자연을 노예적으로 모방하던 영역에서 인간적 발명성이라는 보다 흥미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포스터 군은 만족스런 표정으로 양손을 비볐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태아를 부화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야 암소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계급을 미리 정하고 조건반사적 습성을 훈련시킵니다. 우리는 사회화된 아기를 내놓습니다. 알파 계급 또는 엽실론 계급을 내놓아 장차 하수구 청소부로서 아니면 미래의.....” 그는 미래의 “세계총통”이라고 말할 예정이었지만 정정해서 미래의 “인공부화소장”이라고 말을 맺었다.

소장은 그 찬사를 미소로서 받아들였다.

그들은 11호 선반의 3백 20미터 지점을 통과하고 있었다. 젊은 베타 마이너스의 기계공이

나사를 조이는 드라이버와 스패너를 가지고 그곳을 통과하는 병에 연결된 대용혈액 펌프를 분주하게 틀고 있었다. 전기 모터에서 나는 웅웅거리는 소리는 그가 나사를 돌리자 한층 고조되었다. 계속 돌리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돌리고 나서 그는 회전계를 힐끗 바라보더니 그제서야 손을 멈추었다. 그는 두 발자국 물러서서 이번에는 다음 병에 대하여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일본 동안 도는 회전수를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포스터 군이 설명했다.

“대용혈액의 순환속도가 느려집니다. 따라서 폐를 통과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아에게 주는 산소의 양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태아를 표준 이하로 만들자면 산소 결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는 다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비볐다.

“하지만 왜 태아를 표준 이하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하고 어떤 순박한 견습생이 물었다.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소장이 긴 침묵을 깨고 말했다.

“엡실론 계급의 태아는 엡실론적 유전뿐 아니라 엡실론적 환경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쯤 자네는 생각하지 못하나?” 그것은 확실히 그의 머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다. 학생은 혼란에 빠졌다.

“계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산소를 조금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고 포스터 군이 말했다.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침범당하는 기관은 두뇌였다. 다음에는 골격이다. 통상 산소공급량의 70퍼센트만 공급하면 난쟁이가 된다. 70퍼센트 이하로 하면 눈이 없는 괴물이 된다.

“그런 괴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포스터 군이 말을 맺었다.

그러나 (여기서 포스터 군의 음성은 자신과 열의를 띠었다) 혹시 성숙기간을 단축시키는 기술이 발전되면 이건 얼마나 빛나는 성공이며, 사회에 대한 얼마나 큰 공헌일까!

“말의 경우를 생각해보십시오.”

그들은 말에 대해 생각했다. 6세에 성숙한다. 코끼리는 10세에, 그러나 인간은 13세가 되어도 성적으로 성숙하지 않을뿐더러 20세가 되어서야 완전해진다. 물론 이러한 완만한 발육을 하는 까닭에 인간의 지성은 훌륭하게 발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엡실론 계급에게는 인간적인 지성이 필요치 않습니다.” 포스터 군이 매우 정의롭게 말했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획득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엡실론 계급의 지능은 10세에 성숙되지만 그 육체는 18세까지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 그동안의 기간은 쓸데없는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육체적 성장이나, 이를테면 암소의 성장처럼 속성화될 수 있다면 사회에 얼마나 막대한 절약이 될 것인가!

“막대하고말고!”

견습생들이 중얼거렸다. 포스터 군의 열의가 전염된 것이다.